

생활분쟁 해결...광산구 '이웃갈등 조정가' 주목

소통전문가 8명, 층간 소음·흡연 등 116건 조정 성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연계 활동... "이웃관계 회복 앞장"

광주 광산구가 이웃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웃갈등 조정가'들이 생활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등 다양한 생활갈등 해결사로 나서면서, 오랜 다툼으로 선뜻 풀기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고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명의 이웃갈등조정가(이하 조정가)가 다양한 생활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협력해 이웃갈등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웃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이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2인1조로 구성된 조정가 팀이 현장을 찾아 3~4회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화해와 합의를 돕는 방식이다.

9월까지 접수·처리한 이웃갈등조정 사례만 총 116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87건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관련이다.

광산구의 모 아파트 단지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

다. 고3 자녀를 두고 있는 아래층 세대는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윗층 세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 왔다고 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 등 여러곳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쉽사리 갈등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 '이웃갈등 조정가' 팀이 투입됐고, 갈등의 당사자들과 개별 면담 후 2차례 조정회의의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위아래층 세대는 서로에게 사과한 뒤 외출 시 서로의 부재를 알리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이처럼 조정가들의 활약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여러 갈등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데, 층간소음 외에도 조정가들은 흡연 13건, 층간누수 6건, 주차문제 4건, 반려동물 소음 1건, 기타 5건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내고 있다.

이윤자 조정가는 "처음엔 대면조차 두려워했던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화해하는 걸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어떤 갈등이라도 당사자들이 만나기만 해도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들이 생활갈등 조정 실천 감각을 쌓기 위해 모의 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원만한 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조정가 운영의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찾아가는 이웃갈등 접수창구'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더 많은 갈등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

해 12월 중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2기를 선발, 위촉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 운영으로 다양한 생활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소통과 배려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밤의 도서관'

22일 운남근린공원에서 축제



광주 광산구는 22일 운남근린공원에서 제2회 광산구 도서관 축제 '밤의 도서관'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광산구 도서관만의 '공간 혁신'을 바탕으로 가을밤 별빛과 함께 책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오후 5시 식전공연으로 그림책 콘서트가 열리고, 이후 '밤의 도서관' 주제전이 진행된다. 별빛 책캠핑, 달빛 책수영장, 밤의 영화관, 책 읽어주는 책벌레 팔각정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3시에는 사전행사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함께 사는 불·숲·공기'를 주제로 한 장덕도서관 '제7회 독후화그리기대회'도 열린다. 광산구통합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행사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전 접수도 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1년에 단 하루, 누구에게나 열린 광산구 밤의 도서관 축제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한다"며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현석 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발의

범죄 사전차단...도시공간·건축물,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5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광산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예산 확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적 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공을 위한 도시공간에 방범문, 방범창, 잠금, 경보장치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우선 적용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범죄 피해여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성 등 평가, 방법시설 및 범죄예방 지원사업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석 의원은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범죄 예방 디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화합·상생 마을축제... 월곡2동, 22일 '달아실 아리랑'

광주 광산구 월곡2동은 "오는 22일 화합과 상생을 주제로 고려인과 외국인 주민, 선주민이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 '달아실 아리랑'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달아실 아리랑' 행사는 2021년 월곡2동 주민총회에서 발의된 마을의제에서 기획돼 추진됐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고려인마을 및 외국인 문화가 공존하는 월곡2동만의 글로벌 특색을 반영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출발점이 됐다.

주민자치회,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월곡2동 사회단체와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이주민종합지원센터 등이 마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노한복)를 구성하고, 1년 가까이 꼼꼼하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축제는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오를 예정이다. 이어 주민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화합마당이 펼쳐지고,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아리랑 부채춤, 청소년 아리랑가무단, 고려인 가수의 노래 공연 등 다

재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라시아 의상체험 ▲자원순환(O, X퀴즈) ▲반려식물 만들기 ▲나만의 팽이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노한복 월곡2동 마을축제추진위원장은 "고려인동포와 외국인 주민, 그리고 선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어울리며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마을 축제가 첫발을 내딛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내역 잘못 공고

박해원 의원, 가장 가난한 기초의원 지목 '해프닝'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잘못된 재산내역 공고로 광산구의 한 구의원이 가장 가난한 기초의원 지목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19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박해원(사진) 구의원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에 따라 지난 8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접속해 17억 5731만원의 재산내역을 신고했다.

해당 재산시스템을 통한 신고서는 광주시의 최종 확인 등을 거쳐 지난날 30일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광주지역 기초의원 당선자 41명의 재산 내역과 함께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재산은 신고한 내용과는 달리 마이너스 8106만원으로 공고됐다. 모 언론은 해당 공고 내용을 근거로 광주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으로 박 의원을 지목했고, 유권자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잘못된 공고로 인해 향후 재산증식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유

권자 및 주변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도시재생분야전문가이기도한 박 의원은 직접 나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산 등록 시스템의 재산공개 목록 오류로 부동산과 상장주식 등

채권 재산은 누락된 채 채무 재산만 공개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지난 12일 박 의원의 부동산 10억 3900만원, 비상장주식 6억 8688만원, 채권 1억 800만원 등을 추가하고 전자공보를 통해 재공고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